

“원자력은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며, 배기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에너지”

릭 페리 미 에너지부 장관, ‘실용적 환경주의’ 공표하고 원자력 발전 확대 주장

James Taylor
〈Forbes〉 16 May 2017



릭 페리 미 에너지부 장관은 5월 초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한 강연에서 “진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 위대하고, 안전하고, 깨끗하며, 안전성 있는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지지해야 한다.”며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했다.

릭 페리(Rick Perry) 미 에너지부 장관이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슬로건인 ‘실용적 환경주의’를 공표하며 원자력은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며, 배기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에너지임을 주장했다.

릭 페리 장관은 5월 초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한 강연에서 “진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 위대하고, 안전하고, 깨끗하며, 안전성 있는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지지해야 한다.”며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했다.

릭 페리 장관은 또한 미 에너지부에 풍력과 태양열 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한계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많은 에너지 전문가는 전체 발전량에서 태양열과 풍력 발전의 비중이 높아

질수록 급변하는 전력 수요에 생산량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수요보다 낮은 전력 생산은 일시적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수요보다 높은 전력 생산은 발전 설비 손상을 불러올 수 있다.

어니스트 모니즈 전 에너지부 장관 역시 작년 초 “원자력 발전의 확대 없이는 이산화탄소 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등 태양열과 풍력 발전의 높은 발전 비용과 비실용성을 인지하고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했다.

“원자력 발전 확대를 통해 더 쉽게 에너지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지구 온난화에 우려를 표하는 많은 과학자들은 페리 장관과 모니즈 전 장관의 견해에 동의한다. 기후학자 제임스 한센(James Hansen), 케리 엠마누엘(Kerry Emanuel), 켄 칼데이라(Ken Caldeira), 톰 위글리(Tom Wigley) 등 4인은 영국 <Guardian>지에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들 기후학자들은 “우리는 ‘풍부한’ 청정 에너지가 필요하다. 풍력, 태양열 등을 ‘신재생 에너지’라는 이유만으로 원자력과 같은 ‘풍부한’ 청정 에너지를 제치고 선호할 이유는 없다. 특히 신세대 원자력 에너지 발전은 사용후연료처리 기술을 통해 환경친화적이며 경제적인 발전 방식이다. 지난 50년 간 원자력 발전이 화력 발전을 대체하면서 600억 톤 분량의 이산화탄소 가스 배출이 감소

했다. 원자력 발전은 한 국가의 전력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며, 발생하는 유해 물질은 화력 발전에 비해 굉장히 미미하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편견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기후 문제 해결은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받는다. 한 국가가 필요한 전력량을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전무하다. 원자력 발전 확대를 통해 더 쉽게 에너지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친원자력 성향의 환경단체인 Breakthrough Institute는 2015년 출판한 ‘신환경주의자 선언문(Ecomodernist Manifesto)’에서 “원자력 발전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 온실가스 배출 없이 한 국가의 전력 수요량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발전 기술이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환경운동계의 새로운 흐름인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했다.

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한 ‘원자력’이라는 새로운 합의점이 구성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릭 페리 장관이 그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James Taylor
미 다투머스대 기상학/행정학 학사, 시라큐스대 법학 석사.
NGO 'Spark of Freedom' 회장. 친원자력 환경운동가로 CNN, CBS, FOX 등 다양한 매체에 기고중